

서울시 시민제안

한강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HAN RIVER MOVING STAGE PROJECT

핵심사업 이동형 수상 공연 플랫폼

부가사업 한강 컬러브리지

"공연장이 물길을 따라 시민을 찾아온다."



1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핵심사업) 한강을 이동하는 세계 최초의 수상 공연 플랫폼



-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부유식 공연장
- K-POP, 국악, 클래식, 재즈, 시민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수상 공연
- 각 수변공원에 2~3일씩 순회 공연
- 대규모 객석 설치 없이 수변공원에서 무료 관람
- 야간공연, 드론쇼, 분수, 영상, 불꽃 연계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한강 대표 콘텐츠

2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조감도 (예시)



3 한강 수변공원 순회 공연 (예시 노선)



4 한강 컬러브리지 (부가사업) 교량별 색상과 스토리로 한강 전체를 하나의 야간관광 브랜드로



5 추진 단계 (예시)

- 1단계 (2026~2027)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여의도~반포 구간)
- 2단계 (2028~2029) 확대 운영 및 프로그램 다양화 (독성~잠실 등 추가)
- 3단계 (2030~) 한강 전역 연중 상설 프로그램화 (국제 문화관광 이벤트 연계)

6 기대 효과

- 세계적인 한강 수상 공연 콘텐츠
-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무료 관람)
-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매출 증대
- 도시 브랜드 가치 및 글로벌 홍보
- K-문화·예술·관광 융합 산업 육성
- 친환경 수상공연 및 탄소중립 실현

서울특별시

“움직이는 무대가 만드는 새로운 한강, 새로운 서울!”

제안일 2026. 10. .
제안자 이선혜 · 이용수

※ 사업 개념을 시각화한 콘셉트 이미지입니다. 실제 시설 규모·형태·거점·이동경로와 교량 연출은 서울시의 안전·항행·환경·경관 검토를 거쳐 결정합니다.

제안자 이선혜 · 이용수 (공동)

제안일 2026. 10. .

EXECUTIVE SUMMARY | 한눈에 보는 제안

핵심 제안: 한강 전체를 하나의 “순회형 수상 공연장” 으로 연결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중심은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입니다. 이동 가능한 부유식 공연무대가 여의도·반포·뚝섬·잠실 등 주요 한강공원을 차례로 찾아가 공연하고, 시민은 가까운 수변공원에서 이를 즐깁니다. 한강 컬러브리지는 공연이 도착한 권역의 야간 분위기와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는 보조 콘텐츠로 연계합니다.

MAIN MOVING STAGE	NETWORK RIVER PARKS	SUB COLOR BRIDGE
이동 가능한 부유식 공연무대 K-POP·국악·클래식·재즈· 시민공연	여의도·반포·뚝섬·잠실 등 순회 공연·푸드·시민참여·야간관광 연계	교량 대표색·스토리·경관조명 무대 도착 권역과 색채 연출 동기화

제안하는 시범사업

- **임차 실증:** 신규 제작 없이 기존 바지선·부유식 무대를 임차해 시작
- **대상 구간:** 수심이 비교적 안정적인 한남대교 하류 수변공원 2~3 곳 (예: 여의도 → 이촌 → 반포)
- **운영 방식:** 봄·가을, 거점별 2~3 일 체류, 한강페스티벌·드론라이트쇼 등 기존 축제와 일정 결합
- **컬러브리지:** 신규 설비 없이 개선된 교량 경관조명을 활용한 공연일 연출로만 검증
- **성과지표:** 안전, 이동 1회당 비용, 방문객·체류시간·외국인 비율, 지역상권, 민원, 민간협찬
- **단계적 확대:** 실증 성과 확인 후 전용 모듈형 무대 제작과 상류(뚝섬·잠실) 거점 확대 검토

정책적 핵심 | 새로운 고정 공연장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이동형 플랫폼을 여러 한강공원이 공유하는 모델

1. 「상상대로 서울」 등록 원고

제안 제목

한강을 움직이는 공연장으로 —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조성 제안

제안 본문

[제안 취지]

한강을 고정된 공연장이 아니라, 공연장이 물길을 따라 시민을 찾아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바지선 또는 모듈형 부유체를 활용한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입니다. 하나의 수상 공연 플랫폼이 주요 한강공원을 순회하면 여러 지역이 같은 문화 인프라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핵심사업 —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이동 가능한 부유식 공연무대가 여의도·반포·뚝섬·잠실 등 주요 한강공원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거점에 도착하면 K-POP, 국악, 클래식, 재즈, 버스킹, 시민예술 등 다양한 공연을 열고, 공연이 끝나면 다음 수변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수변공원을 관객석과 체류공간으로 활용하므로 대규모 고정 객석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순회 운영]

“이번 주 무빙 스테이지는 어디에 도착하는가?” 자체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 콘텐츠가 되도록 합니다. 낮에는 가족·시민참여 프로그램, 밤에는 대표 공연과 야간경관 콘텐츠를 운영하고, 한강버스·대중교통·지역상권·관광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부가사업 — 한강 컬러브리지]

컬러브리지는 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경관조명을 활용하는 「공연일 연출 프로그램」입니다. 무빙 스테이지가 도착한 권역의 교량 1~2 곳에 대표색·별칭·스토리를 부여하고, 공연일 저녁에 한해 무대와 색채를 맞춰 공연 도착지를 알립니다. 도색이나 신규 설비가 없어 추가 시설비를 최소화하며, 빛공해와 주거지 영향을 고려해 연출 시간과 밝기를 제한합니다.

[추진 방법]

처음부터 전용 무대를 제작하기보다, 작게 시작해 검증된 범위만 넓히는 3 단계 방식을 제안합니다.

- 1. 1단계 임차 실증:** 기존 바지선·부유식 무대를 임차해, 수심이 비교적 안정적인 한남대교 하류 수변공원 2~3 곳에서 거점별 2~3 일씩 시범 운영합니다. 장마철과 갈수기를 피한 봄·가을에 운영하고, 한강페스티벌·드론라이트쇼 등 기존 축제와 결합해 홍보·관객 모집 비용을 줄입니다.
- 2. 2단계 평가:** 안전(계류·이동 중 사고, 기상 취소율), 비용(이동 1회당 예인·해체·재설치비와 공연비), 수요(관객 수·체류시간·외국인 비율), 지역 영향(인근 상권 매출·소음 민원), 민간 협찬 의향을 측정합니다.
- 3. 3단계 확대 검토:** 실증 결과가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교량 통과가 가능한 접이식·모듈형 전용 무대 제작과 뚝섬·잠실 등 상류 거점 확대를 검토합니다.

[기대 효과]

첫째, 공연장이 시민을 찾아가 지역별 문화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한강 야경과 K-문화를 결합한 서울형 수상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의 이동형 플랫폼을 여러 공원이 공유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넷째, 공연·푸드·관광·굿즈·지역상권·민간협찬으로 파급효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동형 수상공연장이 한강공원을 순회하며 시민을 찾아가는 제안입니다. 기존 바지선 임차 실증부터 시작해 검증된 범위만 확대하고, 컬러브리지는 교량 경관조명을 활용한 공연일 연출로 연계합니다.

첨부파일 설명

첨부 제안서는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의 사업 개념, 순회 운영방식, 시범사업 로드맵, 안전·환경·운영 검토사항과 부가사업인 컬러브리지 연계방안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이미지 속 시설 규모·형태·교량 색상·이동경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안의 우선순위

- **1순위** 기존 바지선 임차 실증을 통한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의 안전성·경제성 검증
- **2순위** 수변공원 순회 공연 프로그램 및 교통·상권 연계
- **3순위** 교량 경관조명을 활용한 컬러브리지 공연일 연출과 관광브랜드 연계

2. 상세 정책제안

2-1. 문제 인식

한강에는 훌륭한 수변공원과 문화행사 자산이 있지만, 공연 인프라는 특정 장소와 행사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지역마다 고정시설을 반복 설치하기보다, 하나의 공연 플랫폼이 여러 공원을 순회하는 “공유형·이동형 문화 인프라”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2-2. 핵심사업 ①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 수면의 무대가 거점을 순회하고, 수변공원은 관객석·체류공간으로 활용
- 대형 LED·음향·조명은 공연 규모에 맞춰 모듈형으로 구성
- K-POP 뿐 아니라 국악·클래식·재즈·청년예술·시민공연 등으로 장르 다변화
-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미디어아트·전시·공공캠페인 플랫폼으로 활용
- 수상 이동·예인·계류·비상대피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교량 통과를 위해 LED·트러스는 접이식·분리형으로 구성

2-3. 순회 운영 시나리오

① ARRIVAL	② SET-UP	③ FESTIVAL	④ MOVE
다음 거점 도착 및 안전 계류	음향·조명·육상동선 점검	공연·푸드·시민참여· 야간콘텐츠	종료 후 다음 한강공원으로 이동

2-4. 예시 순회 노선

1차 실증은 수심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교량 하부 통과 부담이 적은 한남대교 하류 구간에서 여의도 → 이촌 → 반포 등 2~3 개 거점을 예시로 검토합니다. 한남대교 상류는 갈수기 저수심 구간이 있고 잠수교 등 교량 하부를 통과해야 하므로, 뚝섬·잠실·광나루 등은 실증 결과와 수심·향로·계류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망원·양화 등 하류 거점도 수요에 따라 추가 검토합니다.

3. 부가사업 — 한강 컬러브리지

컬러브리지는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를 돋보이게 하는 부가사업입니다. 교량이 사업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공연 거점을 알리고 야간관광의 기억성을 높이는 “도시 조명·브랜드 레이어” 로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서울시 한강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경관조명 연동·서치라이트 등)의 조명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 위에 공연일 색채 연출 프로그램만 더합니다.

예시 컬러	예시 교량	관광 별칭	스토리 키워드	무빙 스테이지 연계
RED	가양대교	Red Bridge	열정·도전	K-POP·청년
ORANGE	마포대교	Orange Bridge	활력·예술	거리예술·푸드
YELLOW	서강대교	Yellow Bridge	희망·빛	가족·시민축제
GREEN	양화대교	Green Bridge	자연·치유	국악·웰니스
SKY	한강대교	Sky Bridge	연결·미래	미디어아트
INDIGO	반포대교	Indigo Bridge	낭만·문화	재즈·클래식
PURPLE	잠수교	Purple Bridge	상상·세계	글로벌 K-컬처
PINK	올림픽대교	Pink Bridge	미래·축제	드론쇼·피날레

* 교량별 색상·별칭은 콘셉트 포스터와 맞춘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전문가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합니다.

운영 원칙

- 신규 조명시설·도색 없이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경관조명을 활용해 추가 시설비 최소화

- 무빙 스테이지 공연일 저녁에 한해 연출 시간과 밝기를 제한해 빛공해 최소화
- 교량의 기존 디자인과 주변 주거환경·생태 존중
- 시범 단계에서는 공연 거점 인근 교량 1~2 곳에서만 운영하고, 시민 반응·민원을 평가한 뒤 확대

**우선순위 원칙 |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 핵심사업 / 컬러브리지 = 공연과 야간관광을 돕는
부가사업**

4. 시범사업 로드맵 및 주요 검토과제

4-1. 단계별 추진안

단계	주요 내용
STEP 1 사전 검토	항행·계류·수심·수위·교량 통과높이·홍수·피난·소음·빛공해·생태·전력 검토, 임차 가능한 바지선·부유식 무대 조사
STEP 2 임차 실증	기존 바지선 임차, 한남대교 하류 2~3 개 거점, 봄·가을 기존 한강 축제와 결합해 거점별 2~3 일 운영
STEP 3 평가	안전, 이동 1 회당 비용, 방문객·체류시간·외국인 비율, 상권효과, 소음 민원, 민간협찬 의향 분석
STEP 4 전용 무대 검토	실증 성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교량 통과가 가능한 접이식·모듈형 전용 무대 설계·제작 검토
STEP 5 확대	상류(독섬·잠실 등) 거점과 운영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컬러브리지 연출도 필요 범위에서 확장

4-2. 주요 검토과제

분야	검토 내용
수상안전	계류 안정성, 강풍·홍수·수위 변화, 비상대피, 구조체 안전
항행	한강버스·일반 선박 항로와의 간섭 최소화, 갈수기 저수심 구간, 교량 하부 통과높이, 예인·이동 시간대 관리
환경	수생태·철새, 조명 빛공해, 음향·주거지역 소음
시설	전력, 음향, 화재안전, 무대장치, 육상 관객동선
경제성	임차와 자체 제작 비용 비교, 이동 1 회당 예인·해체·재설치비, 행사운영비, 민간협력 가능성
운영	우천·폭염·한파 시 취소기준, 팔당댐 방류량 등 운항통제 기준 연동, 공연일정·거점별 체류기간

5. 서울시 기존 자산과의 연계 및 기대효과

본 제안은 기존 한강 사업을 대체하거나 중복 투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량 경관조명, 한강공원 문화행사, 수상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성”이라는 차별점을 더하는 확장형 제안입니다.

5-1. 연계 포인트

기존 흐름	활용 방향	본 제안의 확장점
한강공원 문화행사	수변공원을 관객·체류공간으로 활용	한강페스티벌·드론라이트쇼 등과 일정을 결합해 실증하고, 개별 행사를 순회형 수상 플랫폼으로 연결
수상공연 경험	기존 운영·안전 경험 참고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확장
한강 수상교통	선착장·대중교통 접근성 검토	공연 관람 동선과 관광 이동 연계
교량 경관조명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조명 활용	공연일 색채 연출 프로그램만 추가 (신규 설비 없음)

5-2. 기대효과

- **문화** | 공연장이 시민을 찾아가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관광** | 한강·서울 야경·K-문화가 결합된 차별화된 수상관광 콘텐츠
- **공공효율** | 하나의 이동형 플랫폼을 여러 거점이 공유하는 운영모델
- **지역경제** | 푸드·굿즈·관광·상권·민간협찬 연계
- **도시브랜드** | “움직이는 공연장”이라는 기억하기 쉬운 서울의 문화 이미지
- **야간경관** | 컬러브리지 연출로 공연과 도시 야경을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

한강이 움직이는 공연장이 됩니다.

**공연장이 물길을 따라 시민을 찾아오고,
다리의 색은 그 여정을 빛으로 연결합니다.**

HAN RIVER MOVING STAGE PROJECT

제안자 이선희 · 이용수 (공동) | 2026. 10. .

서울시 정책 제안서

한강이 움직이는 공연장이 됩니다!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프로젝트

물길을 따라 찾아오는 세계적인 수상 공연, 새로운 한강, 새로운 서울!

다리는 색으로 기억하고, 공연은 물길을 따라 찾아온다.

HAN RIVER MOVING STAGE

K-공연, K-문화, K-관광의
새로운 무대가 한강을 따라 찾아옵니다.

1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핵심사업) 한강을 이동하는 세계 최초의 수상 공연 플랫폼



-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부유식 공연장
- K-POP, 국악, 클래식, 재즈, 시민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수상 공연
- 각 수변공원에 2~3일씩 순회 공연
- 대규모 객석 설치 없이 수변공원에서 무료 관람
- 야간공연, 드론쇼, 분수, 영상, 불꽃 연계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한강 대표 콘텐츠

2 무빙 플로팅 스테이지 조감도 (예시)



3 한강 수변공원 순회 공연 (예시 노선)



4 한강 컬러브리지 (부가사업) 교량별 색상과 스토리로 한강 전체를 하나의 야간관광 보판으로



5 추진 단계 (예시)

- 1단계 (2026~2027)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여의도~반포 구간)
- 2단계 (2028~2029) 확대 운영 및 프로그램 다양화 (독실~잠실 등 추가)
- 3단계 (2030~) 한강 전역 연중 상설 프로그램화 (국제 문화관광 이벤트 연계)

6 기대 효과

- 세계적인 한강 수상 공연 콘텐츠
-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무료 관람)
-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매출 증대
- 도시 브랜드 가치 및 글로벌 홍보
- K-문화·예술·관광 융합 산업 육성
- 친환경 수상공연 및 탄소중립 실현

서울특별시

“움직이는 무대가 만드는
새로운 한강, 새로운 서울!”

제안일 2026. 10. .
제안자 이선혜 · 이용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서울시 접수 시스템에 별도 등록합니다.